

고향 광주에 온 재미건축가 최용완씨

“내 건축인생 시작과 끝은 송례문”

‘600년 수도를 지켜온 수문장이 제 목을 불사르며 우는데 우리는 정작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7년 전 송례문 복원 작업에 몸담았던 광주 출신 재미건축가 최용완(70·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씨가 지난 2일 화요일에 펼쳐낸 송례문을 보며 떠올린 시상(詩想)이다. 최씨는 47년동안 소장해오던 송례문 실측 자료를 몽땅 들고 일시 귀국해 송례문 복원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본보 14일자 9면> 최씨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건축가로 40년동안 활동하고 2006년 은퇴했다. 최씨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송례문 해체보수 공사에 참여했고, 미국에 건너가기 전까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47년만에 복원 사업 다시 인연

최씨를 지난 15일 광주 원효사에서 만났다. 원효사는 최씨 부친의 풍장을 치른 곳으로, 최씨가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들러 참배하는 장소이다. 지난 2일 한국에 온 최씨는 오는 30일 출국할 예정이다. 최씨가 보물단지처럼 들고 온 자료는 ▲40여쪽 분량의 송례문 해체실측기록 1권 ▲상량문 기록 1식 ▲기록사진 22매 ▲기와 문양 탁본 17매 ▲당초 문양 탁본 4매 ▲조원제·양철수·임천 등 당시 공사 관계자 관련 기록 47쪽 ▲건축학회지에 발표된 최씨의 보고서 6쪽 등이다.

“미국에서 TV를 통해 송례문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곧바로 달려간 곳이 서재였어요. 먼지에 덮인 채로 선반 위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던 자료들을 보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귀중한 자료임엔 틀림없지만 이렇게 사용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최씨는 1966년 옷가방과 미화 50달러만을 들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송례문 관련 자료는 광주 부모 집에 둔 채였다. 최씨의 부모는 아들이 송례문 복원 작업에 참여한 공로로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귀하게 모셔뒀다. 최씨 부모는 서석중에서 동맹동으로, 지산동으로 이사를 다니면서도 송례문 자료만은 빼놓지 않고 챙겼다. 최씨는 아버지 사망 이후 홀로 남은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온 1985년 19년만에 송례문 자료를 다시 손에 쥐게됐다. “20년 가까이 잘 보관해준 어머니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 잡동사니 취급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부모님은 그 가치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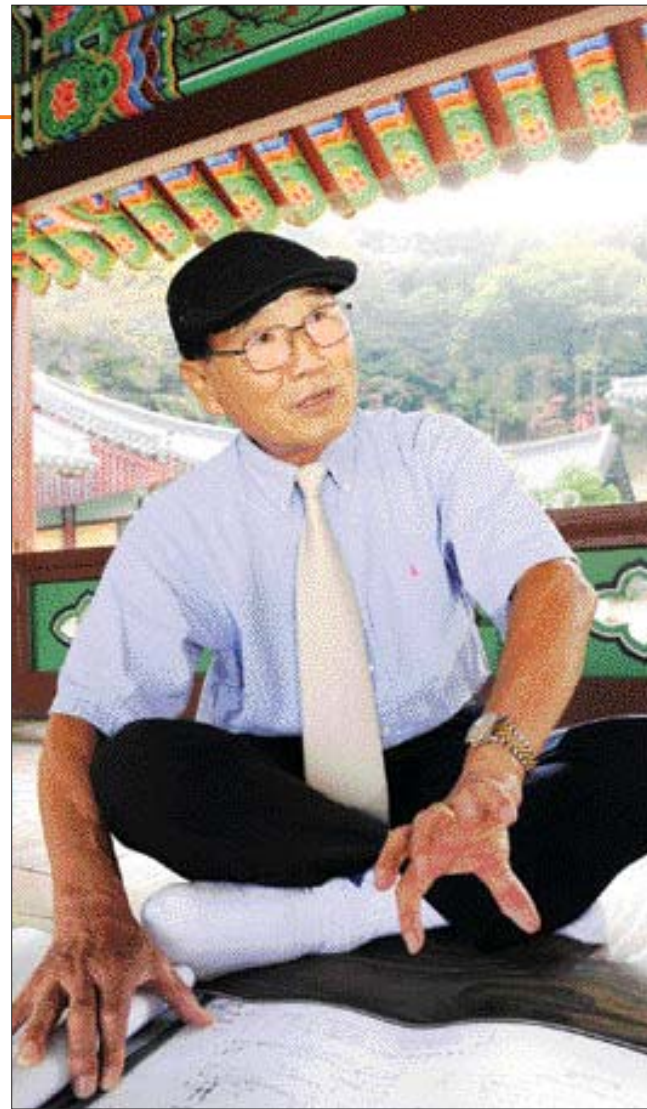
“기록 잘 보관해준 부모님께 감사” 일일이 수기로 작성한 해체실측기록은 현장을 누비며 다닌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다. 문화재청이 그를 송례문복구자문단 고증분과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료의 가치를 높이 산 것도 이 때문이다. 최씨는 “현재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설계도면으로는 외부 모습을 복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건물 내부의 나무 모양이나 이음새 등까지 살려낼 수 없다”며 “60년대 복원 당시 공력 건축을 맡았던 도제수 조원제 선생과 대화록도 개인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자료에는 대패, 자, 장쇠(나무 굴리는 도구) 등 당시 해체와 복구 작업에 사용됐던 연장이 일일이 스케치돼 있는 것은 물론, 건축용어 풀이도 돼

있어 한국건축의 사료(史料)로서 가치가 있다. 기와나 추녀의 문양도 화선지에 손수 탁본을 떠 보관했다. 최씨는 이번엔 가져온 자료들을 송례문 복원 이후 건립 예정인 송례문 전시관에 전시·보관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기증할 계획이다.

해체 실측기록 등 귀중한 자료

최씨는 미국에 돌아간 뒤에도 고증분과위원 신분으로 송례문 복구작업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본격적인 복구작업이 전개되는 내년에는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씨는 “한국건축양식의 우수한 점을 후세에 남게 하려는 생각이 평소에도 갖고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모양새여서 만족스럽다”며 “대학 졸업 후 사회에 발을 내딛으며 건축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송례문이었지만, 마지막 작업도 송례문이 될 지 모르겠다”고 웃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재미건축가 최용완씨가 지난 15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 원효사에서 송례문 실측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

▲1961년 송례문 해체 때 나온 용문양 기와와 1961년 송례문 중수작업 당시 동료들과 일하고 있는 최씨(왼쪽).



나원침 (7630)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text about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신안 앞바다서 선원 실종

17일 오전 7시30분께 신안군 입자도 인근 해상에서 신안선적 9급 연안 결구물 어선 3정일호 선원 박모(44)씨가 동료 선원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두레박으로 바닷물을 떠르다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해경은 사고해역에 122구조대와 경비함정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한편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존속 살해 용의자 목매 숨진 채 발견

집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채 달아났던 50대 아들이 사건 발생 3달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천시 월등면 야산에서 박모(54)씨가 나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수색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박씨가 ‘경찰 수색 차량과 헬기를 봤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으며, 박씨가 사건 이후 경찰의 추적에 압박을 느껴 16일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119구조대원 아버지가 사람 구해

○나주에서 현직 119구조대원의 아버지가 자신의 배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줬다. ○17일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나주시 동강면 영산강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계식(67)씨는 전날 밤 10시께 경찰관이 식당을 찾아와 “사람이 물에 빠져 구조해야 하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기 잡을 때 쓰는 배를 타고 식당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박모(59)씨를 발견, 구조했다는 것. ○구조 당시 박씨는 말을 하지 못하고 수족도 마비된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자신의 아들이 영광소방서 119구조대에 근무한다는 이씨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데 물불을 가릴 수 있겠느냐”며 “구조대원의 아버지로써 더더욱 남의 어려움을 모른 채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i@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없던 일로’

사학분쟁위 “무기한 유보”...정상화 예정대로 추진

정상화를 추진 중인 조선대 등 분규 사학 4곳에 한시적 임시이사를 파견하려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귀호)는 지난 16일 제22차 정기회의를 갖고 교과부가 제시한 임시이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에 대한 정상화 추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은 회의의를 마친 뒤 교과부 박종구 차관을 만나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학분쟁조정위는 지금까지의

견해진 기회를 줬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정예리시(고 박철웅 총장 부인)씨, 박성섭(박 총장 둘째 아들)씨 등 박 총장 일가 외에 김기욱, 강형룡, 정진갑씨 등 전 이사들의 의견을 만나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학분쟁조정위는 지금까지의

견해진 기회를 줬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정예리시(고 박철웅 총장 부인)씨, 박성섭(박 총장 둘째 아들)씨 등 박 총장 일가 외에 김기욱, 강형룡, 정진갑씨 등 전 이사들의 의견을 만나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학분쟁조정위는 지금까지의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 ‘제12회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가 17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광주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열렸다. 광주시 북구청과 북구장애인복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대구 달서구 장애인들이 함께 참가했다. 장애인들과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계모 살해범·강도 상해범 2명

광주지법 내달 중 국민참여재판

광주지법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백모(48)씨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들 사건을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현)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공판준비 기일을 지정해 정점을 정리할 예정이며, 백씨와 박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하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

노인 통장 훔쳐 현금 인출

광주경찰청은 17일 60대 노인의 공과금을 대신 내주기 위해 통장을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고 달아나 현금을 인출한 주부 L(여·45)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시 광안구 월계동 모 은행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K(여·67)씨가 “공과금 내는 방법을 모르니 대신 내달라”며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자신에게 건네자 이를 훔쳐 1천120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일제고사 내신 반영 논란

광주 일부 중학교 “면학 분위기 위해 필요”

교육과학기술부·시교육청 방침과 어긋나

광주시내 일부 중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나 광주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최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를 내신에 반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일제고사의 성적을 내신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고, 광주시교육청도 ‘내신반영 지양’을 담은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공문발송 이후 성적 반영 여부 등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해 일부 중학교의 성적반영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 광덕중은 일제고사 성적을 수행평가에 10% 가량 반영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올 초 학운위 등을 통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시교육청 공문은 ‘내신성적 반영을 지양하라’고 돼있지만 학교 계획대로 내신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수행평가에 일부 과목의 일제고사 성적을 반영하기로 한 광주 서석중 관계자는 “학생들이 더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라며 “그러나 교육청에

서 적극적으로 ‘금지’ 지침을 내린다면 계획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사는 “광주시내 사립중학교 대부분은 일부라도 내신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을 내신에 반영키로 한 학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도가 없는 한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내신에 반영하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내신 반영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내렸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안재환씨에 돈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 영장

한때 탤런트 고 안재환(36)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불법 대부업자가 안씨 건과는 별개로 다른 채무자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연 120%의 고리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동생을 찾아가 폭행·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사제업자 김모(44)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안재환씨와 대화원 동창인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3억9천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안씨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김씨를 찾아가자 그가 먼저 ‘안재환씨 일로 왔다. 이미 노년경찰서에 서다 조사받고 나왔다’고 말해 김씨와 안씨의 관계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for October 18th (Monday, October 20th) and a table of daily temperatures for various regions in Korea.

안재환씨에 돈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 영장